2025년 11월 셋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025년 11월 셋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025년 11월 셋째주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대표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셋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1 - 감사와 회개의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5:1)

한 해를 마저 마무리해가는 이 11월 셋째주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평안, 가족과 이웃들과의 소중한 만남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갔던 하나님의 은혜들까지도 모두 기억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둔 적이 많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주시옵소서. 감사해야 할 순간에 불평했고, 기뻐해야 할 때에 염려했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1월 셋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2 -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서로 간에 오해나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을 축복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시고, 섬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격려해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1월 셋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3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언 29:2)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개인의 이益보다는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져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국민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업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돕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주시고,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복음이 북한 땅에도 전해져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어르신들, 장애인들, 아이들을 보호해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물질적, 기술적 축복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1월 셋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4 -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2-3)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가정을 축복해주시옵소서. 부모님들께서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잘 모실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정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축복해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해주시옵소서. 학업에 지쳐있는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집중력을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작은 친절과 관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1월 셋째주 주일 대표 기도문 5 - 한 해 마무리와 새로운 다짐의 기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이제 두 달여를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셨고, 가족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주셨으며,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운 계획들 중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 세웠던 다짐들, 가족을 위한 계획들, 이웃을 섬기겠다는 마음들이 흐지부지되어버린 것들을 용서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2025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간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축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의 시간들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